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즌3 제3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101쪽

퍼스의 가추법과 법적 가추

지문 평가

글의 구성은 명료하지만 흔히 접할 수 없는 개념들을 다수 동원한다는 점에서 독해가 상당히 까다롭다. (가)에서 가추, 연역을 구성하는 세부 개념들을 충분히 익혀 둔 상태에서만, (나)에서 관련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합 지문에서는 (나)의 이해가 결국에는 (가)에 달린 경우가 많음을 상기하도록 하자.

키워드

(가) 인문 - 서양철학 - 가추법

가추법, 퍼스, 현상 P, 가설 H, 연역법, 개연성, 필연성, 반실재론자들

(나) 사회 - 법학 - 법적 가추

법 규범, 법적 논증, 사실 인정, 요건 사실, 법적 가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증거 능력, 증명력

(가) 문단 1 가추법이란?

- 1) 어떤 사람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져 있는 현상이 관찰된 상태에서,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는 일종의 규칙을 알고 있는 이는 추측을 통해 그의 직업이 타자수일 것이라는 가설을 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결과로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를 가설로 끌어내는 추론의 방법을 **가추법**이라 한다.

☞ **백락 짚기** 일반적으로 '개념'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 나중에 주어지지만, 여기서는 예시가 먼저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여 이해하면 그만이다.

- 현상 : 어떤 사람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져 있다.
- 규칙 :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가추법 : '규칙'을 고려했을 때,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 가설 : 그[→ 어떤 사람]의 직업이 타자수일 것이다.

- 2) 가추법을 제안한 **퍼스**에 따르면 그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어떤 **현상 P**가 관찰된다. 만약 **가설 H**가 참이라면 P는 가장 잘 설명된다. 따라서 H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주목** '가추법'의 기본 형식이 주어졌는데, 앞선 설명을 끌어와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선 설명에서 다른 '규칙, 사례'는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칙, 사례'가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규칙, 사례'는 기본 형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전개 과정에 내포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어떤 P가 관찰된다.
2. P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어떤 '규칙'을 고려했을 때 H가 P를 가장 잘 설명한다.]
3. H가 참이라면 P는 가장 잘 설명된다.
4. H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참고** EBS 연계 교재에서는 '규칙'이 곧 가설 H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래의 가추법에서 '규칙'은 현상 P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 H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가추법의 과정에서 그 '규칙' 역시 추론자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므로 '규칙'이 가설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를 가추법의 가설 H라고 볼 수는 없다.

(가) 문단 2 연역법과 가추법

- 1) 규칙을 대전제, 사례를 소전제로 하여 **특정한 결과**[→ '특정한 결과'로서의 현상]를 필연적으로 끌어내는 **연역법**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추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퍼스는 연역법을 **변형**하여 결과와 규칙을 전제로 삼아 사례를 도출하는 형식을 띤 가추법을 구상했는데, ……

※ **백락 짚기** '연역법'이 등장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글의 초점인 '가추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된 것이지, 연역법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볼 이유는 없다. 즉 연역법과 '구분'되는 가추법의 형식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역법	가추법
형식	규칙, 사례 ⇒ 현상(결과)	현상(결과), 규칙 ⇒ 사례
특징	새로운 지식 ×	새로운 지식 ○

▶ 먼저 '가추법'은 '규칙, 현상(결과)'를 전제로 삼아 그로부터 '특정 사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 즉 '가설'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역법의 형식과 구분된다. 연역법은 '규칙, 사례'로부터 특정 결과로서의 '현상'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 **주목** 그래서 '연역법'은 결론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가령 문단의 '타자수의 예시'를 연역법의 형식으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결론인 '그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져 있다는 현상'은, 이미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어떤 사람'에게서 다시 확인했을 뿐, 그 어떤 새로운 지식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규칙 :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 사례 : 그[→ 어떤 사람]의 직업이 타자수이다.
- ↓
- 현상 : 그[→ 어떤 사람]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져 있다.

- 2) …… 가추법에서 [결론으로서의] 가설 생성을 뒷받침하는 **규칙**으로는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와 같은 추론자의 경험이나 직관, 일반지식 등이 동원될 수 있다. 이 같은 가추법으로는 새로운 지식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 반면 '가추법'은 어떤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결론으로 도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한 점에서 퍼스는 가추법이 유용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가추법의 전제에 해당하는 '규칙'은 객관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다소 주관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한다. '추론자의 경험이나 직관'은 객관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 추론자의 주관에 달린 것들이기 때문이다.

- 3) 예컨대 19세기 초 천왕성의 궤도가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을 때 르베리에에는 중력 이론을 토대로 한 **규칙**을 근거로 태양계에 여덟 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행성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 **백락 짚기** '가추법에 의한 새로운 지식으로의 확장'과 관련된 예시가 주어졌다. 앞선 설명들을 활용하여 '가추법의 기본 형식'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얻은 '새로운 지식'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어떤 P[→ 천왕성의 궤도가 불규칙해지는 현상]가 관찰된다.
 -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중력 이론을 토대로 한 규칙'을 고려했을 때 H[→ 태양계에 여덟 번째 행성이 존재함]가 P를 가장 잘 설명한다.]
 - H가 참이라면 P는 가장 잘 설명된다.
- ↓
- H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 [→ 새로운 행성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음].

4) 다만 다른 이유로 인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 것일 수 있는 것처럼 가추법에서의 가설은 참일 **개연성**이 있는 것일 뿐 **필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 가추법의 두 번째 전제는 'H가 참이라면 P는 가장 잘 설명된다.'가 된다. 그런데 H가 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필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H가 아닌 다른 이유로 P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 문단 3 가추법의 한계

1) 한편 **반실재론자들**은 과학적 지식이 세계에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가추법을 통해 믿을 만한 과학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가추법'의 형식과 특징을 설명하였다면, 여기서부터는 가추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가추법에서의 **규칙**은 추론하는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자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첫 번째 비판이다. 가추법의 전제에 포함되는 '규칙'은 일반지식뿐만 아닌 추론자의 경험, 직관 등도 동원될 수 있다[문단2-2]. 따라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추법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도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나아가 반실재론자들은 가추법이 더 그럴 듯한 가설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충분히 믿을 만한 가설을 얻는 것은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가능한 여러 가설들을 떠올리고 최선의 가설을 취하더라도, 애초에 현상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을 담은 가설이 그중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비판이다. 가추법은 어떤 현상 P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인 H를 찾음으로써 이루어진다[문단1-2]. 그런데 그렇게 찾은 H가 과연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가추법은 추론자가 떠올린 가설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을 택할 뿐이지, 추론자가 애초에 '충분히 믿을 만한 가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가추법의 결론은 일개 추론자가 떠올린 가설들 중에서 최선일 뿐, '가능한 모든 가설들로부터 찾아낸 객관적인 참인 가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주목 종합하면 '반실재론자들'의 두 비판은 모두 가추법은 '추론자' 개인에 좌우된다는 점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그로부터 얻은 '새로운 지식'→ 과학적 지식도 과연 그것이 참인지를 충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 문단 1 법적 가추

1) 재판에서는 **법 규범**이라는 대전제로부터 **사실 관계**인 소전제를 거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법적 논증**이 활용된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항상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에서는 '가추법'을 다루면서 그것의 형식과 특징을 다루었다. 즉 '법적 논증'이 가추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적 논증은 대전제, 소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즉 법적 논증은 가추법이 아닌 '연역법'의 형식을 취한다[(가)의 문단2-1]. 규칙[→ 법 규범]과 사례[→ 사실 관계]로부터 결과로서의 현상[→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2) 법적 논증은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인 **사실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법 규범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논증에서 의미 있는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 **요건 사실**이다.

➡ 가추법과 달리 연역법은 결론의 참이 보장된다[→ '개연성'이 아닌 '필연성'을 갖는다.]. 즉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이라는 전제하에 반드시 결론이 참인 것이다[→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논증'에서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관계[→ 소전제를 파악하는 일인 '사실 인정'이 중요한 것이다.

➡ 각종 사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이다. 요건 사실이 존재해야만, 대전제[→ 법 규범]에 따른 특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목 즉 법적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 법 규범: 어떤 '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 사실 관계: 어떤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 ↓
- 합당한 결론: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3) 그래서 실제 발생한 **자연적 사실들** 중에 요건 사실로 포섭된 것만 사실 인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요건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등 사실 인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에는 법관이 불가피하게 개연성에 의존하여 최선의 설명을 찾는 가설적 추론인 **법적 가추**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 주목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재판에서 법관은 '법적 논증'에 의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한다. 법적 논증의 소전제는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논증을 위해서는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법적 가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적 가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독해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법적 가추 ⇨ 사실 인정[→ 요건 사실의 파악] ⇨ 법적 논증

(나) 문단 2 민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

1) **민사 재판**의 사실 인정 과정에서는 증거 조사 결과와 더불어 분쟁 당사자의 주장, 변론 태도, 소송 정황 등 변론 전체의 취지가 함께 참작되므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이 작용한다. 이때의 심증의 형성에 **법적 가추**가 동원될 수 있다.

➡ 먼저 민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의 경우,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법적 가추가 이루어진단다.

2) 다만 법관의 심증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가추를 쓰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 등 상당한 개연성을 요하는 것이다.

➡ (가)의 앞선 설명을 떠올리자. 가추법의 기본 형식에 따라 어떤 현상 P를 가장 잘 설명하는 H[→ 어떤 요건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최선의 설명'을 찾는 것이 곧 '법적 가추'에 해당한다(가)의 문단1-2).

1. 어떤 P가 관찰된다.
 2. P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어떤 '규칙'을 고려했을 때 H가 P를 가장 잘 설명한다.]
 3. H가 참이라면 P는 가장 잘 설명된다.
- ↓
4. H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주목 이때 최선의 설명(→ H)을 뒷받침하는 규칙은 추론자(→ 법관)의 경험, 직관 등을 통해 동원할 수 있다(7)의 문단2-2]. 그런데 '법적 가추'의 경우는 순전히 추론자의 주관에 기대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경험'과 '경험칙'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말이다. 경험칙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법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추론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일반자식'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그 외에 사실 인정을 위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등 자연적 사실을 파악할 때부터 법적 가추가 활용될 수 있다.

▶ 사실 인정은 '자연적 사실' 중에서 법 규범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문단1-2]. 그런데 애초에 '자연적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그래서 '자연적 사실'이 무엇인지, 즉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가추가 활용될 수 있다.

(L) 문단 3 형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

1) 검사의 기소에 의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는 ……

※ 맥락 읽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앞선 설명한 '민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와 구분하여 '형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2) …… 사실 인정이 피고의 유죄 여부 및 형벌의 정도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로서의 객관적 자격인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이 되도록 한다.

▶ 형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은 애초에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즉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들만이 '요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3) 하지만 그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되므로, 형사 재판에서도 법적 가추가 활용되곤 한다.

※ 주목 형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는 증거 능력이 아닌, '증명력'에 대해 이루어진다. 즉 증거 능력을 갖춘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해 '법적 가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맥락 읽기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이 주어졌으니, 더욱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핵심은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만이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가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 능력	증명력
객관적 자격에 의해 부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부여 [→ 법적 가추]

4) 증거의 증명력이 불확실할 때에는 피고에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관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때의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의심으로, 모든 가능한 의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주목 '민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와 마찬가지로(문단2-2], 이때의 심증 형성도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5) 예컨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피고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법관은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심증 형성**] 이 진단서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맥락 읽기 '형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에 대한 예시가 주어졌다. 앞선 설명과 잘 대응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기서 진단서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적 가추'를 통해 진단서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 주목 이때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높은 증명력'이 아닌,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법관의 법적 가추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증거 능력'이 부여된 증거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6) 다만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사건 경위와 부합해야만 법관의 심증이 배척되지 않는다.

▶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의심'에 대한 예시이다. 그대로 이해하자.

(L) 문단 4 법 규범 해석에서의 법적 가추

1) 법적 가추는 사실 인정 이외에 법 규범 해석에서도 활용되곤 한다.

※ 맥락 읽기 다시 한번 글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 앞선 설명에서는 법적 가추는 사실 인정[→ 소전제]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법 규범 해석[→ 대전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2) 한정된 법조문만으로 사실 관계의 복잡한 국면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법관은 입법자의 의도나 사회 통념을 근거로 하여 법 규범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해석들을 가설로 제기하고, 경쟁 해석들을 따를 때에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해석을 지지하는 방식의 추론이 진행되기도 한다.

▶ 이렇게 법 규범에 대해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최선의 설명'에 해당하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은 곧 '법적 가추'에 해당한다(문단-3].

※ 주목 정리하면, 법적 논증을 위해 '법적 가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다.

1. 법 규범 해석 ⇨ '법적 논증'의 대전제
2. 사실 인정 ⇨ '법적 논증'의 소전제
 - 2-1) 민사 재판에서의 자연적 사실 파악, 사실 인정
 - 2-2) 형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사건 경위 및 재판 과정'과 '법원의 판결'을 보고, 가추법과 관련하여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해 보자.

※ 맥락 읽기 법원의 판결에 관한 '가추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가추'가 동원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 **사건 경위 및 재판 과정**

갑이 운전하는 버스가 맞은편 차선의 택시와 충돌하여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사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갑을 기소했다. 재판에서 갑은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를 얻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가 세 명에게 감정을 의뢰해 각각 **감정서**

를 제출받았다.

➡ '검사의 기소'에 의해 열린 재판이므로 '형사 재판에서의 법적 가추'를 떠올려야 한다[나의 문단3]. 즉 법관의 '감정서들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적 가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 법원의 판결

“감정서의 내용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상충하는 부분도 있어서 각 감정서의 내용 중 일부씩을 취하되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추론한 결과, 사고 당시 갑은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는 운전을 했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 갑의 과속 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갑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 감정서의 내용들이 상충하는 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갑의 유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그 자체만으로 갑을 유죄로 볼 '요건 사실'들이 파악되지는 않는다.

➡ 하지만 법관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판단을 거쳐 각 감정서의 내용 일부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갑이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였음, 갑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요건 사실로 포섭하였다. 즉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다.

4) • 논의 : [A]

∴ ⑥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법적 가추는 어디까지나 '사실 인정'을 위한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 '증명력'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감정서들의 증명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이들 증거들의 객관적 자격인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는 뜻이다.

☞ 참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떠올렸으면 좋을 '법적 논증', 그리고 그를 위한 '법적 가추'는 다음과 같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관은 '갑이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갑의 가설 대신에, '갑이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이라는 가설을 최선의 설명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 요건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법적 가추>

1. '갑이 운전하는 버스가 택시와 충돌한 현상 P'가 관찰된다.
2. P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어떤 '논리와 경험칙'을 동원한 '규칙'을 고려했을 때 H가 P를 가장 잘 설명한다.]
3. '갑이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이라는 사실 H가 참이라면 P는 가장 잘 설명된다.
4. '갑이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즉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법적 논증>

- 법규범 : '갑이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범[→ 갑이 업무상 과실 치상을 했다.]'이라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갑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사실 관계 : '갑이 규정 속도를 많이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범'이라는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 합당한 결론 : '갑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10~13] 예술

쇠라의 소묘와 추상적 조형 원리

지문 평가

'쇠라의 소묘'를 설명하는 지문이지만, 그것을 '인상주의, 쇠라의 회화, 사실주의'와 같은 다양한 관점들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인 글이다. 세부적으로 읽어 내야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세세한 내용들까지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관점들을 구분하여 읽을 수만 있다면 명료하게 읽히는 글이다.

키워드

예술 - 현대 예술 - 쇠라, 소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쇠라, 점묘법, 콩테, 소묘, 사실주의, 관념주의 철학, 고전주의적 미학, 추상적 조형 원리, 「강변, 명암, 리듬, 「콩세르 외로페앙에서,

문단 1 쇠라의 소묘

1) 순간적인 빛의 인상을 담은 인상주의에 반발하여 신인상주의를 이끈 쇠라는 과학적 예술가로 불린다.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각기 다른 원색의 빛들을 점묘법으로 구현하여 회화의 화면을 밝은 광선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쇠라'의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따라서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순간적인 빛의 인상'과 '과학적 분석, 점묘법, 밝은 광선으로 채움'이 구분되는 화풍임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다.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순간적인 빛의 인상	과학적 분석 원색의 빛, 점묘법 밝은 광선으로 채움

☞ 참고 점묘법은 아래와 같이 화면을 칠하는 대신에 색점을 하나씩 새기는 방식이다. 쇠라는 과학적 분석을 거쳐 빛을 '인자'로 이해하고, 무수히 많은 색점을 찍음으로써, 이 점들의 빛이 감상자의 눈에 들어와서 섞이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빛의 인상'이 아니라, '빛 그 자체'를 묘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2) 그런데 밑그림에 사용되는 어두운 크레용인 콩테로 작업한 쇠라의 소묘 작품들은 그의 회화와는 놀랄 만큼 다른 특징들을 지닌다. 쇠라의 회화가 이성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지닌 것과 달리, 무언가를 재현하기 위해 묘사하는 선이나 윤곽선을 쓰지 않고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나 명암의 대비에만 의존하여 극히 어둡고 몽롱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 맥락 짚기 이번에는 쇠라의 '소묘'를 '회화'와 구분하고 있다. 쇠라의 회화는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지녔다면, 쇠라의 소묘는 '극히 어둡고 몽롱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것이다.

쇠라의 회화	쇠라의 소묘
이성적, 딱딱함	어두움, 몽롱함, 신비스러움

❖ 주목 '쇠라의 소묘'는 '묘사하는 선, 윤곽선'을 배제하고,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 명암의 대비'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묘사하는 선'과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에 주목하자. 쇠라는 '선'을 사용하되, 이를 통해 '어떤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 묘사'하지는 않았다. 다른 선들과의 '기하학적 대비'를 노렸을 뿐이다.

×	○
재현을 위한 묘사하는 선 윤곽선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 재현 ×] 명암의 대비

- 3) 쇠라는 소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순간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쇠라의 소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영원한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 명암의 대비'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단 2 관념주의 철학의 영향

- 1)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을 단번에 색채로 포착하려 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밀림과 같은 소묘는 필요하지 않다. 쇠라가 그들과 달리 소묘의 중요성에 관심을 둔 것은 관념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인상주의는 '순간적인 빛의 인상'을 담으려 한 만큼 '색채'에 관심을 두었지 '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문단1-1]. 당연히 '소묘'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와 달리 '쇠라'가 소묘를 중시한 것은 '관념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 2) 당시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관념주의 철학에 따르면 세계는 관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관의 산물로, 정신에 의한 구축물과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쇠라는 객관적인 재현의 연장선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사실적 재현을 추구한 인상주의를 거부했고, 감각에 직접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려 했다.

❖ 맥락 짚기 '관념주의 철학'을 '사실주의'와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사실주의'는 관념주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대립항적 개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관념주의 철학'이 사실주의와 구분되어 갖는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실주의	관념주의
• 객관적인 재현[→ 세계는 관찰 가능] •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사실적 재현 • 인상주의	• 주관의 산물[→ 세계는 관찰 불가능] • 감각에 직접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순수한 본질 • 쇠라의 소묘

➡ '관념주의 철학'에 따르면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사실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도 그렇게 생겼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즉 세계는 '주관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 묘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본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념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쇠라는, 그래서 감각으로는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는 주관의 산물]으로, 감각으로는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 '순수한 본질'에 관심을 두었다.

- 3) 그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고전주의적 미학의 전통을 다시 긍정하면서, 인상주의가 해체하고 외면했던, 조형 요소로서의 견고한 선이나 형태, 명암을 중시했다.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평면적인 추상적 형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낳았다.

➡ '고전주의적 미학'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관념주의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쇠라의 소묘' = 관념주의 철학 = 고전주의적 미학'으로 연결하여 이해해도 무방하다.

❖ 주목 그래서 쇠라는 '견고한 선, 형태, 명암'에 관심을 가졌다. 앞선 설명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견고한 선'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 '기하학적 대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1-2]. 이렇듯 쇠라는 소묘에서, 대상의 재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조형 요소만을 강조했기에, 자연히 평면적인 추상화에 가까워졌다.

문단 3 추상적 조형 원리

- 1) 쇠라는 회화에 있어서 과학적 색채 법칙을 발견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나 명암 등에 대해서도 색채에서 성취한 것과 같은 조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과학적 체계의 발견을 과제로 삼았다.

➡ '쇠라의 회화'가 과학적 체계에 닿아 있듯이[문단1], '쇠라의 소묘'도 과학적 체계와 닿아 있다. 즉 과학적 체계를 토대로 했음에도 '어둡고, 몽롱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낳은 것이다.

- 2) 그리고 형태, 명암, 리듬 등의 조형 요소들을 사물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율적 가치로서 사용하는 '추상적 조형 원리'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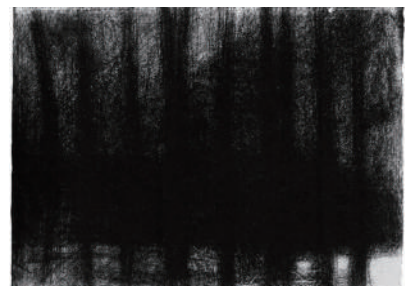
➡ '추상적 조형 원리'에서 각종 조형 요소들은 '사물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여기서 '자율적 가치'는 앞서 다룬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 견고한 선, 형태, 명암의 대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된다.

- 3) 예컨대 그의 소묘 작품 중 가장 추상적인 화면을 보여 주는 「강변」은 굵은 수직선들과 이를 가로지르는 수평선들로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는 강변의 하늘과 땅, 나무 등에 대한 재현의 의미조차 사라진 기하학적 구조 그 자체만 남은 것이다. 이는 공간감을 박탈하고 화면을 평면화하면서 주관의 산물을 추상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 맥락 짚기 「강변」은 '추상적 조형 원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즉 조형 요소들이 어떤 의미에서 '재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율적 가치'로서 사용되었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 「강변」에서 '수직선, 수평선'은 각각 '나무', '강변의 하늘과 땅'을 지극히 단순화하여 기하학적 구조만 남긴 결과물이다.

❖ 주목 다시 말해, '수직선, 수평선'은 자연의 사물들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선들의 기하학적 대비'를 통해, 형태가 자율적 가치로서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



쇠라, 「강변」

문단 4 명암과 리듬의 사용

- 1) 회화에서 **명암**은 흔히 입체감을 더해서 대상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쇠라는 **명암 그 자체의 추상적 가치**를 보여 주기 위해 명암의 점진적인 변화를 제거하고 무언가를 평면적인 그림자처럼 처리함으로써 심리 표현까지도 배제한 채 **명암의 대비만**을 드러냈다. 윤곽선을 벗어 버린 형태들이 극명하게 명암의 대조를 이룸에 따라, 명암이라는 **조형적 가치**로 형태 간의 유사 관계나 대비 관계가 드러나는 효과를 낳았다.

➡ 앞서 '선,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명암'에 대한 설명이다. 명암은 '재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입체감'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부정한 쇠라는 '명암의 대비'에만 주목함으로써, 명암을 '자율적 가치'로서 사용하였다. 이렇듯 명암을 통한 입체감을 배제하였으므로 '평면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문단2-3]. '평면적인 그림자처럼'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곽선을 벗어 버린 형태'라는 표현을 통해, 쇠라는 소묘에서 재현을 위한 '윤곽선'의 역할을 부정하였음을 다시 떠올리게[문단1].

- 2) 쇠라는 소묘에서 음악적 요소인 **리듬**을 조형적 요소로 도입하기도 했다. 가령 무대에서의 가수과 관객들을 담은 듯한 **「콩세르 외로 페앵에서」**는 관객의 머리카락의 위부분처럼 보이는 요소가 규칙적인 파동을 보여 주듯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출렁임과 같은, 점점 고조되는 느낌을 주는 효과를 낳는다.

➡ 맥락 짚기 마지막으로 '리듬'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에는 다른 작품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리듬'이 어떻게 자율적 가치로서 사용되었는지에 집중하면 된다.



쇠라, 「콩세르 외로페앵에서」

문단 5 인물처럼 보이는 형상의 의미

- 1) 한편 쇠라의 소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처럼 보이는 형상은 추상적 조형 원리에 따라 인간성이 소실된 채 윤곽선조차 없이 **기하학적 형태만** 남은 모습을 띤다.

➡ 쇠라의 소묘 작품에는 '인물'이 아니라, '인물처럼 보이는 형상'이 나타난다. 애초에 인물의 재현도 부정하므로, 그렇게 보이는 형상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 2) 쇠라의 미학 체계에 따르면 그의 추상적 조형 원리의 산물은 감상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닿아 있으며,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다. 기하학적 형태나 명암 대비로 남은, 인물처럼 보이는 형상도 그 나름의 감정과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 표현 기호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쇠라가 미술의 본질로 여긴 것이다.

➡ '인물처럼 보이는 형상'에 인간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감상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의 감정을 전달하는, '일종의 상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1) 쇠라의 소묘 작품 속에 표현된 인간의 모습은 다분히 **평면적이고 관념화된 형상**을 띤다. 구체성과 개별성이 제거되어 다른 것과 동등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상화된 인간 형상**은 과거에 미술에서 다루어지던 기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그 기본적인 방식이란 개별 인간을 다른 사물이나 동물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본질인 **인간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쇠라의 소묘 작품 속 '인간의 형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쇠라의 소묘를 설명하는 기본이 되는 '추상적 조형 원리'를 떠올려, '인물처럼 보이는 형상'에 대해 설명한 문단5를 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주목 쇠라의 소묘 작품에서의 '인간'을 과거 미술에서의 '인간'과 구분하고 있다. 문단5의 설명을 떠올리면, 이해해 보자.

과거 미술	쇠라
구체성, 개별성 인간성 표출 다른 사물이나 동물들과 구별	평면적, 관념화 인간성 소실 다른 사물이나 동물들과 동등

- 2) 그의 소묘 작품에서 인간은 감정이 담긴 **얼굴 묘사조차 극도로 억제**되어 있으며, 엄격한 좌우 대칭인 형태로 **그림자처럼** 처리되어 주변과 **명암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얼굴이나 팔다리가 생략되어, 인간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요소도 없이 **타원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등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 '얼굴 묘사조차 극도로 억제'된 것은 특정 인물을 재현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성이 소실될 수밖에 없다[문단5-1].

➡ 쇠라의 소묘에서 인간의 형태는 '엄격한 좌우 대칭인 형태'를 이루는데 이는 '선'이 재현을 위함인 아닌, '기하학적 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문단3-3]. 이렇게 재현을 거부하기 때문에 조형 요소들만이 남게 되어서, '타원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등만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림자처럼 처리'되는데, 이는 '입체감'이 아닌, '명암의 대비'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문단4-1].

∴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쇠라의 소묘 작품 속 인간의 형상은 '추상적 조형 원리'의 산물로, 인간성이 소실되어 있지만 → 다른 사물이나 동물들과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감상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닿아 있으며,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다[문단5-2].



쇠라, 「흰 옷의 어린이」

TCP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자문 평가

전형적인 기술 지문으로 TCP에 따른 장비 간의 실제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글이다. TCP의 목적이 무엇이고, 세부적으로 헤더의 구성에 의해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키워드

기술 - 통신 기술 - TCP

프로토콜, TCP/IP 모델, IP, TCP, 세그먼트, 헤더, SYN, ACK, 세 방향 악수 방식, 순서 번호, 접수 번호, 타임아웃

문단 1 TCP/IP 모델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이 높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네트워크의 작동에 관한 모델 중 **TCP/IP 모델**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과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따른다. **IP**는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찾기 위한 것이다. IP에 따라 경로가 정해지면 **장비** 간의 실제적인 데이터 전송은 **TCP**에 따라 이루어진다.

☞ **백락 짚기** IP와 TCP는 모두 장비들이 데이터를 '신뢰성이 높게'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각각이 '신뢰성 보장'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IP	TCP
목적지까지의 경로 탐색	장비 간의 실제적인 데이터 전송

☞ IP에 의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였다면, 해당 경로에 따른 데이터 전송은 TCP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IP가 먼저, TCP가 나중이다.

문단 2 세그먼트의 구성

TCP는 두 장비 간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신뢰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TCP에 따라 전송되는 작은 정보 묶음을 **세그먼트**라 하며, 이는 헤더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구분된다. **헤더**에는 연결을 요청하는 신호인 **SYN**, 수신했음을 알리는 신호인 **ACK**, **순서 번호(Seq)**와 **접수 번호(Ack)** 등이 담긴다.

☞ **백락 짚기** IP, TCP 중에서 글의 초점을 TCP로 좁히고 있다. 즉 실제적인 데이터 전송에 관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TCP의 목적은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에 있다[문단1]. 기술 지문을 읽을 때에는 이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글을 읽는 내내 '신뢰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계속해서 의식할 필요가 있다.

☞ TCP에 따른 두 장비 간 데이터 전송에서, 실제로 주고받는 정보 묶음을 가리켜 '세그먼트'라 한다. 세그먼트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정보가 많이 주어졌으므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찬찬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그먼트 = 헤더 + 데이터
= (SYN + ACK + 순서 번호 + 접수 번호) + 데이터

문단 3 연결 설정

1) 장비 갑, 을 간에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 데이터가 포함된 세그먼트들을 전송하려면 먼저 **연결 설정**을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부분을 비워 둔 특정한 세그먼트들을 갑과 을이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세 방향 악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백락 짚기** 본격적인 데이터 전송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로 갑, 을 간의 데이터 전송이 주어졌다. TCP에 따른 데이터 전송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전개될 테니, 유의해서 주어진 정보들을 잘 쫓아가야 한다.

☞ 우선 갑, 을 간의 '연결 설정'이 필요하다. 갑, 을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세 방향 악수 방식'이라 하나 보다. 여기서 '연결 설정'을 갑, 을 간의 경로를 탐색하는 IP에 따른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세그먼트'는 TCP에 따라 전송되는 것이므로[문단2], 연결 설정 역시 TCP에 따른 것이다.

2) 이를 위해 갑은 먼저 **SYN**이 포함된 세그먼트를 을에 보낸다. 을은 이를 수신했음을 알리면서 자신도 연결 요청을 하기 위해 ACK와 SYN이 함께 포함된 세그먼트를 갑에 보낸다. 갑이 을에 다시 ACK가 포함된 세그먼트를 전송하여 을이 수신하면 연결 설정이 완료된다.

☞ '세 방향 악수 방식'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설명됐다. 각 단계를 구분하여,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1) 첫 번째로, 갑이 을에게 SYN이 포함된 세그먼트를 전송한다. SYN은 연결을 요청하는 신호이다[문단2]. 따라서 SYN은 이렇게 '연결 설정'을 위해 헤더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모든 세그먼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2) 두 번째로, 을도 갑에게 SYN이 포함된 세그먼트를 전송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ACK도 함께 보낸다. 앞서 '갑이 전송한 세그먼트'를 수신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문단2].
- 3)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다시 ACK가 포함된 세그먼트를 전송하고, 그것을 을이 수신하면 '연결 설정'이 끝난다.

☞ **주목** 이렇듯 '연결 설정'은 SYN, SYN+ACK, ACK가 담긴 세그먼트들을 차례대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갑 → 을', '을 → 갑', '갑 → 을' 순서대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세 차례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세 방향 악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백락 짚기** 아직까지 '순서 번호, 접수 번호'는 언급되지 않았[문단2]. 이들의 역할은 연결 설정 이후에, 즉 실제 데이터 전송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단 4 데이터의 전송

1) 이렇게 연결 설정이 완료되는 마지막 세그먼트에는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것도 허용되는데, 갑이 그 세그먼트에 5바이트(=데이터의 단위, 0 또는 1로 이루어진 이진수의 한 자리를 1비트라 할 때, 1바이트는 8비트)의 데이터를 싣고 헤더에 'Seq=11, Ack=51, ACK'를 담았다고 하자.

☞ 지금부터는 실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설명이다. '연결 설정'에서 갑이 마지막에 전송한 세그먼트에 '데이터'도 포함하여 전송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을 알리는 ACK만이 아니라, 헤더에 'Seq, Ack'도 함께 포함된다.

2) **순서 번호**는 자신이 보낸 전체 데이터에서 1바이트마다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붙이는 번호이되, 헤더에는 해당 세그먼트에 담겨 있는 데이터에서의 순서 번호 중 가장 앞쪽 숫자가 적힌다. 즉, 이 세그먼트에는 순서 번호가 11에서 15까지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순서 번호(Seq)'에 대한 설명이다. '데이터'에는 순서대로 번호가 붙어 있고, 이때 값이 전송할 데이터는 11, 12, 13, 14, 15까지 순서 번호가 붙어 있다. 헤더에는 그중 첫 번째 순서 번호인 '11'만이 담기는 것이다.

3) 올은 이를 수신한 후 10바이트의 데이터를 싣고 헤더에 'Seq=51, Ack=16, ACK'를 담은 세그먼트를 갑에 전송할 수 있다. 본래 갑이 보냈던 세그먼트에서 **접수 번호**는 자신이 상대방부터 다음 번에 받아야 할 세그먼트에서의 순서 번호로 정해지는 숫자여서, 그 접수 번호와 올이 새롭게 전송한 세그먼트에서의 순서 번호가 같은 것이다.

➡ 올이 전송하는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는 51이다. 10바이트의 데이터가 싣려 있으므로, 순서 번호가 51에서 60까지만 데이터가 세그먼트에 담겼다는 뜻이다.

※ 주 목 '접수 번호(Ack)'에 대한 설명이다. Ack는 상대방이 보낸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갑이 전송한 세그먼트에는 11에서 15까지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으므로, 올의 입장에서 그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순서 번호'가 16인 데이터부터 전송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접수 번호는 '다음 세그먼트에서 몇 번째 순서 번호의 데이터부터 전송해라'라는 뜻을 갖는다.

접수 번호 : 받을 세그먼트가 시작하는 순서 번호
= 받은 세그먼트의 마지막 순서 번호 + 1

➡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갑이 처음 데이터를 담아 전송한 세그먼트의 Ack가 왜 51이었는지도 알 수 있다[문단4-1]}. 올이 갑에게 그 다음으로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가 51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Ack를 51로 정한 것이다.

4) 이어서 갑은 헤더에 'Seq=16, Ack=61, ACK'를 담은 세그먼트를 올에 보낼 수 있다.

➡ Ack가 61인 것은, 올이 보낸 세그먼트의 마지막 순서 번호가 60이었기 때문에, 올이 그 다음 순서 번호인 61번 데이터부터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 주 목 문단4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에서 ③까지는 '연결 설정'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전송한 세그먼트의 Ack가 그 다음에 수신할 세그먼트의 Seq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더	의미
①	SYN	'갑'이 '을'에게 연결 요청
②	SYN, ACK	'을'이 '갑'에게 연결 요청
③	Seq = 11, Ack = 51, ACK	'갑'이 1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을'로부터 51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함
④	Seq = 51, Ack = 16, ACK	'을'이 5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갑'으로부터 16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함
⑤	Seq = 16, Ack = 61, ACK	'갑'이 16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을'로부터 61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함

참고 좋은 독해자라면 이 시점에서 TCP의 목적은 '신뢰성 확보'에 있음을 떠올려야 한다. TCP에 따라 각 세그먼트들의 헤더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어떻게 신뢰성에 기여하는지를 계속해서 문제 삼았어야 한다.

문단 5 타임아웃 기능에 따른 분실 복구

1) 각 장비는 상대가 보낸 세그먼트에서의 순서 번호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순서를 바르게 정렬한다. 순서 번호가 중복인 세그먼트는 버려진다.

➡ 문단4의 예시에서 올은 갑이 전송한 ③, ⑤를 Seq에 따라 정렬할 수가 있다. ③에는 11번 데이터부터 담겨 있고, ⑤에는 16번 데이터부터 담겨 있으므로, 무엇을 먼저 배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일부 세그먼트가 도착하지 않은 분실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분실이 발생할 때 TCP는 수신 장비가 분실 여부를 상대에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타임아웃** 기능에 의해 오류가 복구되도록 한다.

➡ 그런데 일부 세그먼트가 누락되는 '분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뢰성 확보'를 저해하는 문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TCP에서는 '타임아웃'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기능은 분실 여부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분실한 세그먼트를 다시 수신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 상황 : 분실 상태
- 문제 원인 : 일부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음
- 해결 방안 : 타임아웃 기능

3) 한 장비에서 데이터가 포함된 세그먼트를 여럿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데,……

➡ 문단4의 예시에서는 갑은 ④를 수신한 다음에 ⑥를 전송하였으므로, 데이터가 포함된 세그먼트를 연속적으로 보내지 않았다. 연달아 보냈다고 가정해 보자.

	헤더	의미
①	SYN	'갑'이 '을'에게 연결 요청
②	SYN, ACK	'을'이 '갑'에게 연결 요청
③	Seq = 11, Ack = 51, ACK	'갑'이 1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을'로부터 51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함
④	Seq = 16	'갑'이 16번 데이터부터 전송

※ 주 목 연속으로 보낸 ④에 ACK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롭게 수신한 것이 없으므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접수 번호' 역시 마찬가지이다.

4) …… 갑이 연속으로 보낸 것들 중 마지막 것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자. 올은 자신이 가장 최근에 수신한 세그먼트를 토대로 접수 번호와 ACK를 포함한 세그먼트를 갑에 전송할 것이다.

➡ ④가 도착하지 않은 분실 상태가 나타났다고 하자. 올의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③을 가장 나중에 받았으므로, 갑에게 ③에 대해 회신할 것이다.

※ 주 목 즉 11에서 15까지의 데이터를 받았으니,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16번 데이터부터 전송해라'라는 의미에서 Seq = 16인 세그먼트를 보내라는 세그먼트 ⑥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헤더	의미
①	SYN	'갑'이 '을'에게 연결 요청
②	SYN, ACK	'을'이 '갑'에게 연결 요청
③	Seq = 11, Ack = 51, ACK	'갑'이 1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을'로부터 51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함
④	Seq = 16	'갑'이 16번 데이터부터 전송
⑤	Seq = 51, Ack = 16, ACK	'을'이 5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갑'으로부터 16번 데이터 부터 수신받아야 함

5) 갑은 그 세그먼트를 받음에 따라 분실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타임아웃 기능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분실된 그 세그먼트를 재전송한다.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분실된 줄 알았던 세그먼트가 그 사이에 을에 전송되고 그 수신을 알리는 세그먼트가 갑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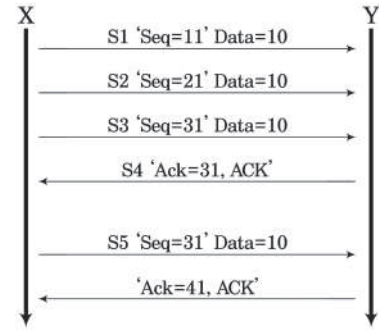
- ➡ 갑은 ⑤를 수신함에 따라 '분실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자신은 이미 16번 데이터를 포함한 세그먼트 ④를 전송하였는데, 을은 자신에게 16번 데이터를 포함한 세그먼트를 전송하라는 취지의 ⑥를 전송하였기 때문이다. 즉 ⑤의 ACK가 ④가 아닌, ③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 ➡ 다만 갑은 우선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다. ④를 정상적으로 전송했지만, 그것을 을이 아직 수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④가 ③보다 늦게 전송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차피 Seq에 따라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5-1]. 일정 시간을 기다려도 을이 ④의 수신을 알리지 않는다면, 갑은 ④와 동일한 세그먼트를 다시 전송한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헤더	의미
①	SYN	'갑'이 '을'에게 연결 요청
②	SYN, ACK	'을'이 '갑'에게 연결 요청
③	Seq = 11, Ack = 51, ACK	'갑'이 1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을'로부터 51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함
④	Seq = 16	'갑'이 16번 데이터부터 전송
⑤	Seq = 51, Ack = 16, ACK	'을'이 51번 데이터부터 전송 다음에 '갑'으로부터 16번 데이터 부터 수신받아야 함
⑥	Seq = 16	'갑'이 ④ 재전송

※※ 주목 이렇듯 'Seq'에 의해 전송한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정렬될 수 있고, 그리고 'Seq, Ack'에 의해 데이터의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TCP는 '신뢰성 보장'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이다[문단2].

<보기> 분석

<보기> 문단



S1~S5는 화살표 방향에 따라 전송된 세그먼트를 지칭하는 기호이며, 파음표 안의 내용은 헤더에 적힌 내용, Data의 값은 그 세그먼트에 포함된 데이터의 바이트 수이다.

(단, TCP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며, X와 Y는 세 방향 약속 방식에 따라 연결 설정을 마친 직후의 상태라고 가정함.)

- ➡ 도식에서 세그먼트의 Seq와 화살표 방향을 통해, 각각의 세그먼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S1~S5의 의미를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헤더	의미
S1	Seq = 11	X가 11에서 20까지의 데이터를 전송함
S2	Seq = 21	X가 21에서 30까지의 데이터를 전송함
S3	Seq = 31	X가 31에서 40까지의 데이터를 전송함
S4	Ack = 31, ACK	다음에 X로부터 31번 데이터부터 수신 받아야 함
S5	Seq = 31	S3 재전송

※※ 주목 S1~S3까지는 X가 Y에게 여러 세그먼트를 연속적으로 전송한 것에 해당한다. 11에서 40까지의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그런데 S4는 Ack가 31이다. 다음에 31번 데이터부터 수신받아야 한다고 Y가 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S3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신한 X는 S3의 분실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문단5-5].

- ➡ <보기>의 그림에서 S4와 S5 사이의 간극은 '타임아웃 기능'에 따라 기다려지는 '일정 시간'을 의미하겠다.

∴ ⑥번 선지는 적절하다. 일정 시간을 기다린 X는 S5를 전송하는데, 이는 S3를 재전송한 것에 해당한다. Seq가 31이라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31에서 40까지의 데이터를 전송한 만큼, S3와 동일한 세그먼트를 재전송한 것이다].

[22~26] 현대시

(나) 「얼음 속의 밀림」

— 김기택 —

작품 평가

제목 그대로 이 시의 화자는 차고 단단한 얼음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밀림을 본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살펴보자.

제 1연 성에를 보고 식물들 떠올리며 의문을 느낌

겨울 아침, 유리창 가득 반짝이는
성에를 본다. 유리창에 반발한 하얀 식물,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무엇일까,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 놓은 힘은.

▶ 겨울 아침 유리창에 생겨난 '성에'를 보고, '꽃과 잎과 줄기'를 가진 '식물'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물방울'을 '성에'로 만들어 낸 '힘'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제 2연 성에를 만든 힘에 대한 추측

결빙의 힘 속에
식물의 본능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땅속에서 물을 퍼 올려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서슬 푸른 법(法)과 도(道)의 세계가
결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일까.

▶ '~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며, 제1연에서 궁금해했던 '힘', 즉 '결빙의 힘'에 대한 추측을 심화하고 있다. '결빙의 힘'을 '식물의 본능', '생명의 비밀'과 관련지음으로써, '성에'의 생성에 생명 탄생의 원리가 작동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서슬 푸른 법과 도의 세계'는 무질서한 물방울에 엄격한 질서를 부여하여 '성에'를 만들어 낸 힘에서 화자가 떠올린 것으로, 무질서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내는 원리를 환기한다.

제 3연 성에를 들여다보며, 결빙 과정의 치열함을 떠올림

이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막 얼기 시작한 물이
결빙의 갈날과 환회를 견디다가
절정의 순간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 놓은
투명한 불의 흔적이 보인다.

▶ '결빙'의 과정을 마치 생명 활동처럼 치열한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다. '갈날과 환회'는 생명 탄생 과정의 고통과 희열을 환기한다. 그 고통과 희열이 절정에 이른 순간을 화자는 '불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 4연 성에를 보며, 지상의 모든 얼음 속 밀림을 상상함

겨울 아침, 하얀 식물 성에를 보며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린다.
푸른 얼음 속에 울창하게 퍼져 있는
또 다른 원시림을 본다.

▶ '성에'에서 '식물'을 떠올린 것을 확장하여, '지상의 모든 얼음' 속에 있을 수 많은 결정체를 떠올려 그것을 울창한 '원시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청정한 법과 도가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뿌리 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본다.

▶ 화자는 성에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참신한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 겨울 아침 유리창에 낀 '성에'에 생명 탄생을 주관하는 '법과 도'가 작동하듯, 지상의 모든 얼음 속에도 그 '법과 도'가 생동하고 있다는 상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제2연에서 화자는 '서슬 푸른 법과 도의 세계'가 물의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식물'과 같이 섬세한 모양을 지닌 '성에'를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4연에서는 그 '법과 도'가 '지상의 모든 얼음' 속에 깃들어 생동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 감

[22~26] 수필

(다) 「매화」

— 이태준 —

작품 평가

글쓴이는 혹한에 피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그러한 매화의 속성을 인간 삶과 결부함으로써 교훈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차갑더라도 풀 먹인 옷은 다듬잇살이 올라야 하고 덧문까지 봉하더라도 차야만 겨울 맛이랄 저녁상에 된장이 향그러운 날은 으레 바깥날이 찼고 수선(水仙)이 승능 김에 얼었던 고개를 들고[→ 방안에 따뜻한 승능 김이 어리자 얼었던 수선화 줄기가 고개를 들고] 아내의 붉은 손이 동치미 그릇에서 얼음쪽을 골라내는 것은 먹어 봐야만 느낄 맛이 아니리라. [→ 추위에 붉게 언 아내의 손으로 그릇 속에서 얼음을 골라낼 만큼 차가운 겨울 동치미는 먹어 봐야만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겨울이 너무 차다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 너무 뜨거운 때문, 우리 역시 상설(霜雪, 눈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나 매화 같은 양이면 겨울이 더워선들 어찌하라.

▶ 글쓴이는 '된장', '동치미'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겨울이 추워야 '겨울 맛'이 나고 겨울답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람이 겨울이 차다고 느끼는 것은 체온이 뜨겁기 때문이며, 사람이 눈과 서리 또는 매화와 같다면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략)

매화란 고운 꽃이기보다 맑은 꽃이요 달기보다 매운 꽃이라[→ 매화는 맑고 매서운 느낌을 주는 꽃이라는 말] 그러므로 색 있는 것이 그의 자랑이 못 되는 것이요 복엽(複葉, 한 잎자루에 여러 개의 날 잎이 붙어 겹을 이룬 잎)이 그에게는 무거운 옷이라 단엽 백매(單葉白梅, 흙꽃잎의 흰 매화)를 찾으려 꽃이 피기 전부터 다닌 것이 도리어 탈이었는지[→ 너무 서두른 탓에 원하는 매화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음] 봉오리 맺힘이 적고 빗갈이 푸르기만 한 것으로 골라 사 왔더니, 봉오리는 차츰 붉어지고 피는 것을 보니 게다가 복엽까지라 공작과 같은 난만(爛漫,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함)은 있을지언정 제 어찌 단정학(丹頂鶴)의 결벽(潔癖, 유난스럽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벽)을 벗할 수 있으리오!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루 아침 크게 놀란 것은 집안사람이 온통 방심하여 영하 십도가 넘는 날 밤 덩그런 누마루에 그냥 버려두어 수선과 난초는 얼어 중상(重傷)이 되었으나 홍매(紅梅)라도 매화만은 송이마다 꽃술이 충기 있는 계집애 속눈썹처럼 또렷또렷해 주인을 반기지 않는가! [→ 추위에 얼어 버린 다른 꽃들과의 대비를 통해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

▶ 작가는 색깔 있는 매화보다 흰 매화를, 복엽보다 단엽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구하지 못하고 '홍매'에 '복엽'인 매화를 구하게 된다. 작가는 자신이 구해온 매화가 공작새와 같은 화려함을 있을지언정 흰 학과 같은 깨끗한 아름다움 [→ 단엽 백매가 가지는 아름다움]은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주 추운 밤에 누마루에 꽃들을 버려두게 된 일이 있었고, 추위에 얼어 버린 다른 꽃들에 비해 생기가 넘치는 홍매의 모습에서 작가는 매화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다.

국화를 능상(凌霜, 서리를 우습게 여김)이라 하나 매화의 고절(苦節,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굳은 절개)을 당치 못할 것이요[→ 국화와 비교를 통해 매화의 우월성을 부각] 매화를 백천 분(百千盆)

놓았더라도 난방이 완비되었으면 매화의 고절을 받아 보기 어려우리라. 절개란 무엇 견디기 어려움에서 나고 차고 가난한 데가 그의 산지(產地)라 인정이니 생활이니 복이니 함도 진짜일진댄 또한 고절의 방역(方域)을 벗어나 찾기는 어려울 줄 알리라.

▶ 작가는 아무리 매화가 많아도 따뜻한 곳에서는 매화의 '고절'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며, 혹한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력을 발하는 매화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고 가난한 데'서 발현되는 매화의 '절개'와 마찬가지로 '인정이니 생활이니 복이니' 하는 것들도 '진짜'인 것은 '고절의 방역(=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감

작품 평가

이 작품은 작가가 연산군 재위 중 사회(士禍)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느낀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이다. 천상의 신선 세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된 화자가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알리려고 하는 말을 통해,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리 이렇도다

➡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진 것이,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진술이다.

천 층 물결 한가운데 백척간두 올랐더니

➡ 자신이 천 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물 한가운데에 있는, 백 척(→ 대략 30미터) 길이의 긴 장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은, 화자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음을 나타낸다.

난데없는 회오리바람 환해(宦海, 관리의 사회. 흔히 험난한 벼슬길을 이름) 중에 일어나니

➡ '환해' 중에 일어난 '난데없는 회오리바람'은 화자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의미한다. 흔히 '환해풍파(宦海風波,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난 일)'라는 말로 나타내는 이것은 앞에 나온 '천 층 물결 한가운데 [있는] 백척간두[에] 올랐다'는 시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과 땅 모를로다

➡ 그리하여 결국 유배에 처하게 된 자신이 느끼는 당혹감과 좌절감을, 억만 길 깊이의 연못에 빠져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나라의 묶은 술에 한단(邯鄲)이 무슨 죄며(= 노나라가 초나라에게 줄 지 않은 술을 바친 탓에 엉뚱하게 조나라 수도 한단이 화를 입은 일을 언급한 시구)
→ 노나라의 술이 묶은 것에 대해 [조나라의 도성인] 한단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 참고 전국 시대에 조나라와 노나라는 초나라에 술을 바쳤는데, 어느 해에 노나라가 품질이 떨어지는 묶은 술을 내놓았고, 이때 술을 운반하는 사자가 노나라의 술과 조나라의 술을 바꿔치기해 초나라가 조나라의 도성인 한단을 공격한 것을 말한다.

진나라 사람 취한 잔에 월나라(→ 진나라와 월나라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던 두 나라를 뜻함) 사람 무슨 탓 인고

→ 진나라 사람을 취하게 한 술잔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관여를 했으랴.

➡ 화자는 아무 잘못 없이 공격을 당한 '한단'과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월나라 사람'에 빗대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성문(城門) 모진 불에 옥석(玉石)이 함께 타니

➡ 참고 '불에 옥석이 함께 타' 버린다는 것은 옥의 산지로 유명한 곤륜산에 불이 나면 옥과 돌이 구별 없이 타 버린다는 「서경(書經)」의 구절을 차용한 표현이다.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어라

➡ 사회로 인해 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옥이든 돌이든)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신세를 엉뚱한 이유로 시들여 버린 '난'에 빗대고 있다.

➡ 참고 '성문 모진 불'에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다'는 것은, 성문에 난 불을 끄느라 연못의 물을 다 퍼내서 연못의 물고기가 엉뚱한 피해를 입어 말라 죽었다는 고사를 차용한 표현이다.

(중략)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화자가 남쪽 지방에 와 있음이 나타나므로, '북풍'은 임금(→ '님')이 있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한다. 그 '북풍'을 맞으며 홀로 울고 있다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늘 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 그런데 '님'은 화자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란과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런가

➡ 참고 이 구절의 의미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 혹자는 '중략' 앞에서 화자가 자신을 시들여 버린 '난'에 비유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을 식물 또는 꽃에 비유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란과 국화'가 임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다른 인물들(→ 임금 곁에 있는 다른 신하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해석에 내재한 문제점은, 작가가 처한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임금 곁에 있는 신하들은 간신배들이라는 입장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런 인물들을 과연 '목란과 국화' 같은 아름다움과 자조를 표상하는 꽃에 빗대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반첩여(= 한나라 때 황제의 총애를 잃었던 후궁) 왕소군(= 한나라 때 황제에게 버림받아 북방의 흉노족에게 강제로 시집갔던 궁녀)처럼 박명(薄明)한 때문인가

➡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버림받은 여인들에 견주고 있다.

군은(君恩, 임금의 은혜)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차취 없고

옥안(玉顏,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볼로다

➡ 화자가 말하는 '님'이 여인을 사랑하는 보통의 남자가 아니라 임금이라는 점이 '군은'과 '옥안'이라는 시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화자가 자신을 버림받은 여인에 빗대기도 하고 임금에게 내치진 신하로 나타내기도 하는 혼란을 보인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 자신의 몸이 녹아서 없어지든 죽어서 없어지든, 그것은 모두 옥황상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해골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

➡ '공산 해골'은 화자 자신의 쓸쓸하고 서글픈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라 볼 수 있다.

곤륜산(崑崙山, 서왕모가 살며 불사(不死)의 물이 흐른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 전설 속의 산)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아주 높고 대단한 소나무)(→ 화자의 환생)이 되어 있어

→ 곤륜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만장송이 되어서

바람비 뿌린 소리에 님의 귀에 들리거나

→ 바람비 뿌리는 소리로 임의 귀에 들리는 것이나

➡ 화자는 자신이 빈산에 구르는 해골처럼 아무도 알아줄 이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소나무로 변한 자신의 진심을 부딪치는 바람비 소리이라도 임의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윤회 만겁(輪廻萬劫) 하여 금강산 학(鶴)(→ 화자의 환생)이 되어

→ 만겁(= 지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윤회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다

→ 임의 귀에 들리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로다.

➡ 죽어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거듭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임이 지금처럼 자신의 말에 귀

가물여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진심을 알릴 길은 그런 참혹한 방법뿐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라 할 수 있다.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 '만장송'과 '학'이 되고 싶다고 하던 화자가, 이제 한 그루 '매화'가 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다. '만장송'이 되든, '학'이 되든 임에게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토로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일 수 있다.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 '외나무'와 '혼자'라는 시어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짐작할 수 있다.

월중 소영(月中疎影,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이 님의 옷에 비치 거든

가여운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화자는 앞에서 자신이 '만장송'이나 '학'이 되어도 임의 귀에 자신의 슬픈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옥황상제 처분'이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매화'가 되더라도 그 '매화'의 가여운 얼굴을 본 임이 '네로다(= 너로구나)' 하며 반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27~30] 고전시가

(나) 「강호구가」

— 나위소 —

작품 평가

노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은거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낸 작가의 강호 시가로서 총 9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작가는 고기 잡는 늙은이, 즉 '어옹(漁翁)'을 화자로 내세워 자신의 은거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어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현실의 어부가 아니라 은거하는 선비의 이상적인 삶을 형상화하기 위한 가짜 어부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제 5수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이로다

▶ 바람 없는 달밤의 잔잔한 물결이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다는 말이다.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이 나타나 있다.

소정(小艇)을 비껴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 어옹의 한가한 정서가 나타나 있다.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아라 세상 알까 하노라

▶ 화자는 물가의 갈매기에게 흥취를 너무 즐기지는 말라고 하는데, 너무 오랜하게 즐거워하면 이 한가한 흥취를 세상 사람들이 알까 두렵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익숙한 표현 방식이다.

제 7수

가는 비 비낀 바람 뉘대 멘 저 할아비야

네 생애 얼마치라 수고로움도 수고로울샤

▶ 초·중장의 화자는 '뉘대 멘 저 할아비'에게 말을 거는데, '뉘대 멘 저 할아비'는 <제5수>를 비롯한 이 작품의 다른 수들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즉 작가와 동일시될 수 있는 인물이다. <제7수> 초·중장의 화자는 어옹에게 비와 바람을 맞으며 낚시를 해야 하다니 참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생계를 위함이 아니라 어흥(漁興, 낚시에서 느끼는 흥취) 겨워하노라

▶ 중장은 초·중장에서 화자가 건넨 말에 대한 '뉘대 멘 저 할아비'의 대답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드러낸다. 생계 때문에 힘들여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흥취를 즐기고 있을 뿐이니 즐겁기만 하다는 것이다.